



300-3-098. 신문조서(姜達永 외 47명 치안유지법 위반) 10-2

■ 姜達永 외 47명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내용 수록(문서 300-3-097 계속)

- 예심판사의 피고인 신문조사가 진행되었다. 11월 3일에는 李相薰의 신문이 있었고, 12월 1일에는 權五尙·朴泰善·薛炳浩·金世淵의 피고인 신문이 있었고, 12월 2일에는 南海龍·金東富·白基浩·李在益·朴一秉의 피고인 신문조사가 있었다. 12월 3일에는 李浩·李忠模·裴致文의 피고인 신문조사가 있었고, 4일에는 金演義·李奎宋의 피고인 신문조사가 있었다. 12월 6일에는 趙東赫·曹俊基·裴成龍·李鳳洙·愼杓晟·金瑛禧의 신문조사가 진행됐다. 1927년 3월 1일에는 金東成·閔泰瑗·安在鴻의 피고인 신문조사와 여러 명의 본적조회가 있었다. 3월 11일에는 姜達永의 5회 피고인 신문조사가 있었고, 3월 14일에는 李準泰 3회, 金政瑄 3회, 金明奎 2회의 신문이 있었고, 3월 15일에는 朴允弘·金正奎·朴一秉·金昌俊·魚秀甲·李相薰·金東富·李忠模·李在益·金世淵·具昌會·李殷柱·柳淵和·高允相·李奎宋 등의 2회 피고인 신문조사가 진행되었다.
- 16일에는 李浩·姜均煥·金演義·裴成龍·李承燁·金有聲·金瑛禧·蔡奎恒·趙容浩·曹俊基·趙東赫·李炳立·趙鏞周·朴泰善·南海龍·愼杓晟·裴致文 등의 2회 피고인 신문조사가 있었고, 17일에는 權五尙·裴致文·李敏行·李鳳洙 등의 2·3회, 薛炳浩·白基浩 등의 2회 피고인 신문조사가 진행되었다. 피고인 신문 조사 내용은 각자의 활동내용에 따라 다르다.